

A Hip Place with Pops of Color

# TriBeCa Loft

취재 / 김주아

Design / ghislaine viñas interior design, LLC ·  
Ghislaine Viñas · Vané Becidyan  
(+1 212 219 7678)

Location / Tribeca, New York City

Area / 371m<sup>2</sup>

Material / Floor-Maple Wood

Furniture-Lacquer Finish, Upholstery

Bathroom-Thassos · Carrara Marble

Kitchen-Carrara Marble, Stainless Steel

Photography / Eric Laignel



뉴욕의 최신유행을 접할 수 있는 맨해튼의 Tribeca(트라이베카)는 오래된 건물들 사이에 즐비한 고급레스토랑들로 잘 알려진 거리이다. 이곳에 위치한 TriBeCa Loft는 건물 설립초기 창고, 공장과 같은 상업적인 용도에서 시작하여 6년 전 건축가 Gluckman Mayner에 의해 주거용 공간으로 리노베이션 되었으며, 최근 디자이너 Ghislaine Viñas가 내부 인테리어를 새롭게 완성하였다. 디자이너는 기존 건물의 안팎을 면밀히 관찰하고 약 110여 평에 달하는 공간의 디테일까지 정확하게 재설계한 건축가에 감명 받아 더욱 열정적으로 디자인에 임하였다.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원하는 공간을 설명하기 위해 잡지 속의 한 공간을 예로 들었는데 이는 그레이와 블랙으로 완성된 질은 회색조의 내부에 오렌지, 옐로로 마감된 가구들이 포인트로 배치된 것이었다. 대부분의 독신남성들이 집을 장식할 때 블랙, 그레이, 화이트를 위주로 선택하는 것과는 달리 그는 지역의 특색을 담으면서 동시에 한국인인 자신의 동양적 정체성이 공간 곳곳에 표현되길 원했다. 그리하여 '어린 시절 크레파스 상자를 열 때마다 행복감을 느꼈다'는 디자이너의 기억을 바탕으로 감각적인 컬러조합이 과감하면서도 매력적인 디자인을 이끌어냈다. 공사초기에는 상업공간이었던 특성에 따라 많은 벽체들로 구분되지 않은 하나의 통합된 장소였기 때문에 디자이너는 우선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하여 가장 효율적인 동선으로 공간을 배분하였다.

입구 좌측의 한쪽 벽면에는 모서리가 라운딩 처리된 독특한 형태의 콘솔과 여러 개로 분할된 면이 공간을 다양하게 비추는 거울이 함께 적용되어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와 함께 1970년대 스타일의 업홀스터리 크롬 체어를 지나 Arne Jacobsen의 Egg Chair가 배치된 라운지에 들어서면 오렌지 빛 쿠션과 매치된 감각적인 화이트 소파를 접하게 되는데 이는 디자이너가 기존에 있던 L자형 소파를 반질반질한 비닐로 덮씌워 완성한 제품이다.

MOROSO의 책상, M @ Mercer의 블랙 스톤이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완성하는 오피스와 강렬한 핑크톤의 게스트 침실을 동시에 접할 수 있는 공간.





분할된 면들로 이루어진 거울과 심플하면서도 독특한 디자인의 콘솔이 시선을 사로잡는 입구.



기존에 있던 카라라 대리석을 활용한 주방에 Tom Dixon의 현대적인 팬던트 조명, Bertoia의 스톨을 적용하여 신선한 느낌을 연출하였다.

또한 라운지 좌측에 위치한 주방은 수납, 급배수 설비 등 대부분의 기능들은 기존보다 편리성이 더욱 향상되었다. 이와 달리 벽면과 테이블에 적용된 카라라 대리석에서는 아일랜드 주방의 스테인리스 스틸, 다이닝룸의 월넛 테이블과 함께 기존 제품을 활용한 것으로 손 때문에 빈티지 스타일을 선호하는 디자이너의 취향을 엿볼 수 있다. 다이닝룸의 천장에는 Tom Dixon의 메탈 원형 팬던트조명들이 각기 다른 길이로 자유롭게 매달려있는데 이는 14개의 다리를 가진 빈티지 테이블과 함께 각각 현대와 과거를 상징한다. 한편, 다이닝룸 우측의 옐로 파티션은 세라믹 소재의 둥그란 장식이 일렬로 배치되어 흥미로운 공간을 연출한다. 그레이 톤을 주로 사용한 거실에 배치된 2개의 'Hairy Bertoia Chair'는 옐로 컬러의 산업용 고무호스를 사용한 제품으로, 함께 놓인 옐로 도트 패턴의 그레이 소파와 함께 차분한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다이닝룸 너머의 라운지에는 Arne Jacobsen이 디자인한 오렌지컬러의 Egg Chair와 쿠션들이 배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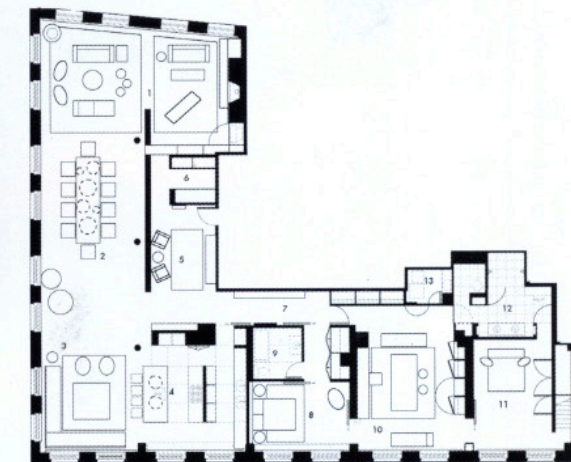
마스터 욕실에 나란히 적용된 두 개의 세면대는 클라이언트의 생활패턴을 세심하게 고려한 결과이다.

TriBeCa Loft 디자인의 핵심인 마스터 침실은 각 모서리가 와이어로 고정되어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이는 헤드가 있는 침대를 선호하는 서양인과 달리 이를 개의치 않는 한국인 클라이언트에게 가능한 디자인이었다. 이와 함께 침대 뒤쪽 벽면을 마감한 실버벽지는 그대로 노출되는 배관시설, 사이드 테이블 위의 사각 프레임조명과 함께 보다 신선한 모던함을 표현하며 감각적인 컬러조합이 돋보이는 게스트 침실은 디자이너가 직접 제작한 침대헤드, 쿠션이 'Amy Helfand'의 회화작품들과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대다수 사람들이 공간에 과감하고 원색적인 컬러들을 사용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는 것과 달리 높은 채도의 컬러들과 모던한 요소들로 완성된 TriBeCa Loft는 오픈마인드의 클라이언트와 컬러를 사랑하는 디자이너가 만나 이룩한 성공적인 결과물이다. □



양상한 나뭇가지를 닮은 옷걸이와 독특한 펜던트 방식의 침대, 실버리한 벽면이 어우러져 미래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평면도



자유로운 곡선의 와이어로 완성된 파티션과 이를 통해 바라본 오피스 룸.

### Ghislaine Viñas

네덜란드에서 태어나 남아프리카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Ghislaine Viñas는 폭 넓은 성장배경을 바탕으로 남다른 감수성과 디자인 직관력을 지녔다. 1999년에 자신의 디자인 스튜디오인 'ghislaine viñas interior design, LLC'을 설립하고 이후 뉴욕의 Chelsea art 지역에 위치한 약 250여 평의 사무 공간, 갤러리를 디자인하였다. 이 외에도 LA를 비롯한 미국 주요도시에서 주거·상업·사무 공간 등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